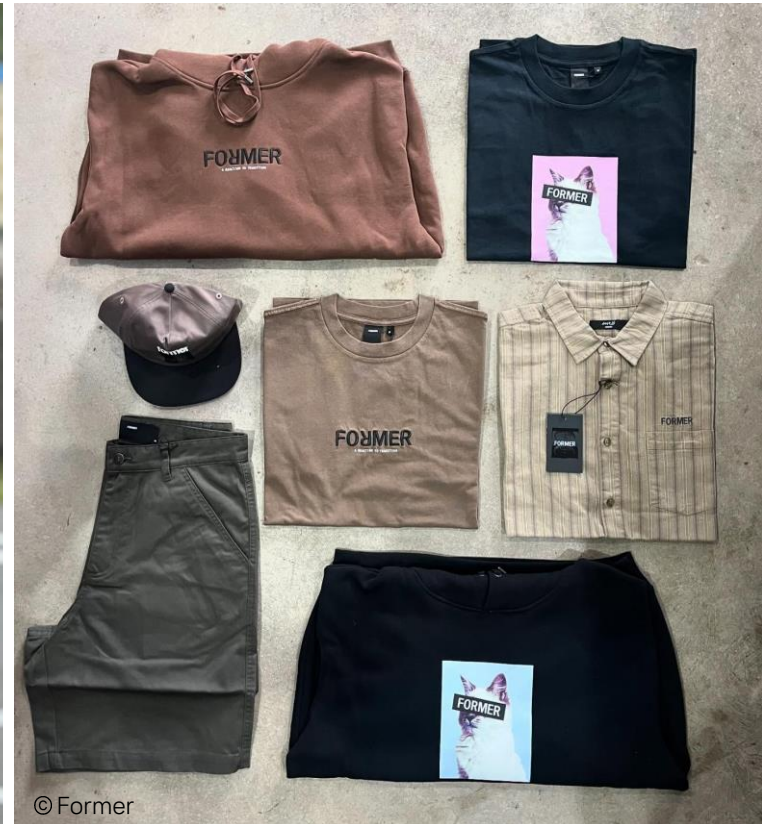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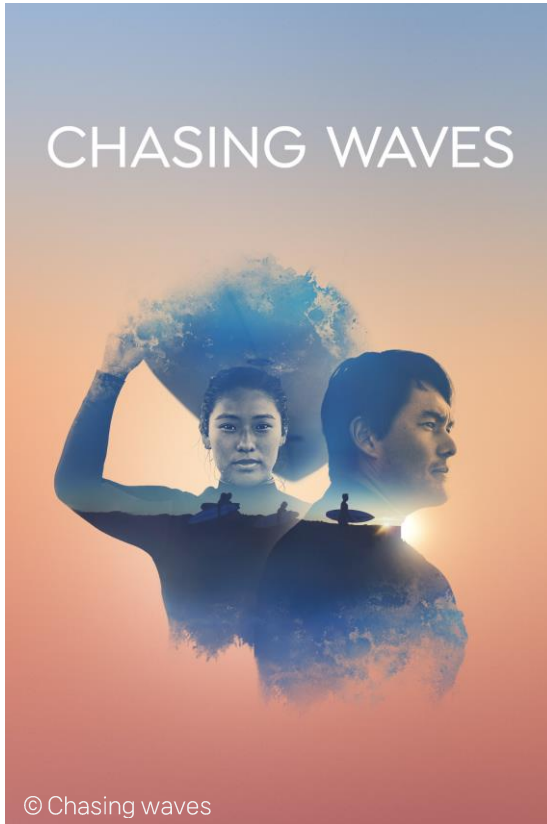


스포츠 & 웰니스

수상스포츠의 성장과 새로운 기회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서핑에 열광

- ✓ 서핑은 기존의 젊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시니어 등 모든 계층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워터 스포츠로 2032년 1710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 서핑, 다이빙, 웨이크 서핑이 팬데믹 이후 중국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인기가 급등했으며, 한국에서도 한 겨울에도 서핑을 하는 인구 증가, 일본 서핑 문화를 다룬 파도를 따라서(Chasing Waves)가 디즈니 +에서 개봉됨
- ✓ 서핑 시장에 흑인, 히스패닉 인구가 진입하면서 가나 부수아의 서프가나(Surf Ghana)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핑렛슨, 워크숍 등을 개최함
- ✓ 레저 산업에서는 1년 365일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인공파도 시설이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서핑 리조트가 오픈되고 있음
- ✓ 포머(Former) 와 리비아 프로젝트(Rivvia Projects)와 같은 브랜드는 고전적인 혈령한 티셔츠와 보드 반바지 조합의 대안으로 더 세련된 서핑 룩을 제시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서핑 컬처

- ✓ 서핑은 이제 주류 문화로 정착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 루이비통은 2024년 프리폴 컬렉션을 선보인 홍콩에서 서핑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서퍼들을 런웨이 모델로 세웠음
네이션 플로렌스(Nathan Florence)의 아내 마히나(Mahina), 롱보드 챔피언 카니엘라 스튜어트(Kaniela Stewart), 카우아이 서퍼 타하키 파프케(Tahaki Papke)가 모두 루이비통의 런웨이를 장식함
- ✓ 한편 이탈리아의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의 2025년 봄/여름 남성복 컬렉션은 미국 작가 윌리엄 피네건의 서핑 회고록 에서 영감을 받아 스쿠버 밀창이 달린 신발, 돌고래, 히비스커스 꽃, 바나나 잎 등 바닷가의 서퍼들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가득 채웠음



새로운 워터 스포츠로 떠오르는 패들보딩

- ✓ 글로벌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시장은 2022년 15억 5천만 달러에서 2030년 32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10년 백만명에 불과했던 미국의 패들보딩 인구는 2023년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배 이상 성장함
가디언지에서는 패들보딩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주목함
- ✓ 영국 패들보딩 회사 고파들(Go Paddle)은 물 위에서 진행되는 탈출 게임을 고안하였고, 클럽 나이트 세션에서 패들보드 투어와 선상 운동, 스트레칭 및 호흡법 진행
- ✓ 패들보드 요가는 물 위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균형을 잡으며 다양한 요가 자세를 연습하는 것으로, 미국 셀럽 마일리 사이러스와 같은 유명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
- ✓ B-Board와 같이 물이 필요 없는 곳에서도 패들보딩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음



야외수영과 함께 떠오르는 새로운 수영복 시장

- ✓ 이제까지 대부분의 수영 활동은 실내 수영에 집중되었는데, 최근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영 활동이 증가되면서, 소재,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 야외 수영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최적화된 운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 야외 수영에서는 실내 수영에 비해 안전이 더 많이 요구되면서, 벨기에 신생 기업 헥소레이(Hexoray)의 SwimVest Mk.1은 소형의 재사용 가능한 수영 조끼로, 오픈 워터 수영자를 익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됨
- ✓ 일반적으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네오프렌 소재의 웨트수트를 착용하는데, 호주 브랜드 Zoggs는 아웃도어 수영을 위해 기존 수영복 디자인에 특별히 제작된 실버라인 수영복을 출시. 이 수영복은 일반 수영복에 비해 체온을 60% 이상 더 잘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 Hexoray



© Zoggs

지속가능성

패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의류 관리 산업의 성장

럭셔리 브랜드의 애프터케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

- ✓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 일환으로 럭셔리 제품의 수선 케어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
- ✓ 리셀 시장이 성장하면서 좀 더 관리가 잘 된 옷을 사고 팔겠다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어 럭셔리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수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 샤넬은 런던, 도쿄, 오사카, 홍콩에 이어 서울에 샤넬 앤 무아 레 아틀리에(Chanel & Moi - Les Ateliers)를 오픈하였는데, 이 센터에서는 샤넬의 모든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최고의 관리 및 맞춤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 이탈리아의 럭셔리 브랜드 골든 구스(Golden Goose)는 멕시코 플래그십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지역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및 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두 수선실을 함께 운영



수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 ✓ 2019년에 런칭한 영국의 수선 관련 스타트업 the seam은 패션 제품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옷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회사를 창업
- ✓ 이를 위해서 영국 전역에 있는 수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선 내용에 따라 적절한 숙련공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선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 관리 및 수리 데이터를 통해 브랜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사용하여 브랜드 소유자와 레이블에 물질성, 내구성, 고객 착용 습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중요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Adidas는 영국의 의류 수선 전문 기업인 더 씸(The Seam)과 협력하여 아디다스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세척(운동화), 수리(운동화, 가방, 액세서리, 야외 장비 및 운동복) 및 지퍼 교체(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운영
Adidas x The Seam의 마이크로사이트 에서 예약하면 전문 제작자가 지정되고 수선을 접수하고 나면 우편으로 배달 받을 수 있음



Meet the Makers.



Tilly K



Ellie B

무료로 낡은 자사 제품을 수선해주는 Toast

- ✓ 영국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토스트(Toast)는 Toast Repair라는 서비스를 런칭
- ✓ 수선이 필요한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수선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존의 제품을 수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류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토스트의 수선 전문가는 사시코 수선, 덧대기 및 패치에서 아플리케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선과 보이는 수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 후 의류의 원단과 수선 유형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
- ✓ 또한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올뜯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수선하여 Toast renewed 컬렉션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함
- ✓ 소비자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수선 기술을 위한 온라인 용어집까지 만들어서 배포



수선 서비스를 위한 SAS, Circulo

- ✓ 영국의 대표적인 수선 스타트업인 The Restory는 셀프리지, 파페치, 브라운스 등 패션 업계에서 내노라하는 리테일러들의 수선 파트너로 이름을 날렸으나, 2023년 M&A와 추가 투자를 실패하면서 청산 절차에 돌입하였음
- ✓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The Restory의 창업자들은 수선 서비스를 위한 SAS 프로그램 Circulo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 ✓ 실제 수선 서비스는 관리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에 비해 데이터화되고,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어려워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산업으로 알려져있음
- ✓ 서큘로는 온라인으로 수선을 접수하고, 수선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수선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 ✓ 뿐만 아니라 수선 과정을 리테일러 혹은 브랜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까지 탑재하여, 향후 확대되는 수선 서비스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DELIVER SCALABLE, PROFITABLE AND SEAMLESS REPAIR SERVICES CUSTOMISED TO YOUR BUSINESS NEEDS WITH THE FIRST PROVEN GLOBAL TECHNOLOGY

WE'VE FACILITATED OVER 100,000 REPAIRS ACROSS DIVERSE CATEGORIES, COLLABORATING WITH 10 ENTERPRISE BRANDS

- Farfetch • Nicholas Kirkwood • Selfridges • Harrods • Harvey Nichols • Browns Fashion • Arncliffe • Brown Thomas • PPS • Manolo Blahnik • with The Restory •

AUTOMATE

- Quoting and pricing
- In-and-outbound logistics
- Customer communications
- Internal communication
- Real-time tracking and tracing
- Work queue scheduling
- Marketplace management

[Learn More](#)

INTEGRATE

- E-Commerce
- Retail Point Of Sale (POS)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 Customer Service Software
- Logistics and couriers
- Warehouse Management

[Learn More](#)

INTERNATIONALISE

- Create a blueprint to deploy globally
- Customise by territory to meet your unique requirements
- Design the customer journey for your brand in-store and/or online
- Onboard international external repair partners, centres or manage in-house locally

[Learn More](#)

circulo

1 2 3 4

Burberry - Clothing
Please can you repair the left seam

Levis - Clothing
Please can you shorten these in the original style to where I have pinned them

[Add another item](#)

[PREVIOUS](#) [NEXT](#)

circulo

1 2 3 4 5

CONFIRM ITEMS
Check you've added all items for repair

Beilstaff Jacket

A.P.C. Jacket

[Add another item](#)

[Previous](#) [Next](#)

지속가능성

기후위기로 변화하는 패션 산업

일상 생활 속 자외선을 차단하는 의류의 확대

- ✓ 기후온난화를 넘어 기후 열대화 시대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태양열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3년 8월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 경보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세계 영토에서 이는 일상 생활의 현실이 되고 있음
- ✓ 중국에서 자외선 차단 UPF(자외선 차단 지수) 의류 판매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80% 성장했으며, 2026년까지 시장 규모가 132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 그간 스포츠 의류에서만 적용되었던 UPF 의류가 일상복까지 확대되면서 중국의 보스덩, 일본의 유니클로 등 주요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컬럼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 클로덴(Claudent), 카바나라이프(Cabana Life), 모트50(Mott50), 솔바리(Solbari) 등과 같은 브랜드도 UPF 의류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음



이상 기후로 더워지고, 추워지는 지구, 온도에 대응하는 패션 브랜드

- ✓ 유니클로가 '시원한' 에어리즘(AIRism) 제품을 앞세우고 있지만,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콜롬비아스포츠웨어, 리포메이션(Reformation)과 같은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리테일러도 열을 이기는 흡습 및 통기성 섬유 혁신에 투자하고 있음
- ✓ 라이크라의 쿨맥스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Brrr°의 냉각 미네랄이 함유된 트리플 칠 이펙스 섬유와 같은 원단을 사용한 의류 제조도 증가하고 있으며, 온도 조절 텐셀도 사용되고 있음
- ✓ 미국 브랜드 어데이(Aday)의 쿨위브(Cool Weave)는 뛰어난 습기 흡수, 건조 및 UPF 50+ 특성을 갖추고 있어 비슷한 원단보다 80% 더 시원함
- ✓ 또한 라이프랩스(LifeLabs)의 쿨라이프(CoolLife)도 비슷한 원단보다 체온을 3°F(-16.11°C) 더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세계 최초의 적외선 투명 원단으로 온도 혁신 기술을 탑재



극한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의류의 성장

- ✓ 야외 작업은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어서, 환경 윤리 기관은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극심한 더위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요구 하고 있음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 내 200만 명의 야외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도시와 카운티에서 만드는 것을 중단시키는 법률에 서명
홍콩에서는 모든 야외 공공 작업 계약자에게 착용자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하도록 설계된 열 스트레스 방지 유니폼 을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
- ✓ 이러한 환경 변화로 텐케이트(Tencate) 와 같은 회사는 내화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열 부담을 줄이는 더 가벼운 원단을 개발
- ✓ 또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혁신의류 컬렉션도 있는데, 카타르 올림픽 때 작업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스테이쿨 수트나, 미국 육군, Fed-Ex 직원, 더치브로스 커피(Dutch bors coffee) 등이 착용하는 쿠어 퍼포먼스(Qore Performance)의 아이스 플레이트 등을 주목해볼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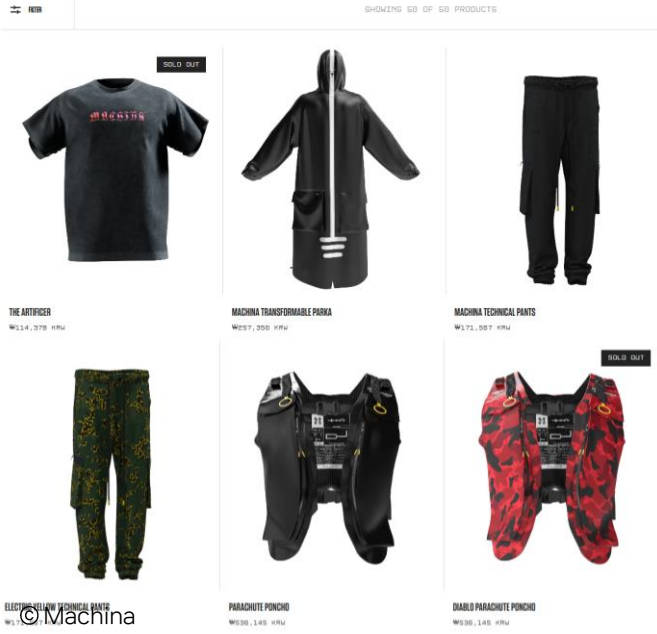
극한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기후 대응 패션

- ✓ 다양한 극한의 기상 현상과 기후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난 대응형 의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마키나(Machina)는 어떠한 기후변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포칼립스레디(Apocalypse Ready) 컬렉션을 출시
- ✓ 런던에 본사를 둔 디자이너 요한나파르브(Johanna Parv)와 셋추(Setchu)는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 맞는 디자인 제안
- ✓ 미국에 본사를 둔 MOW의 이솔라(Isola)재킷은 기후 변화에 맞춰 조절이 가능한 50가지의 기능적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궁극의 모든 날씨 모험 동반자"로 브랜드를 포지셔닝 하고 있음

APOCALYPSE READY

INTRODUCING OUR APOCALYPSE READY COLLECTION, FUELED BY TECHNOLOGY AND PERFECTLY ENGINEERED TO WEATHER EVEN THE MOST TRENDY APOCALYPTIC SCENARIOS. FROM TRANSFORMABLE GARMENTS TO SUSTAINABLE FABRICS, OUR LINE OF METICULOUSLY CRAFTED APPAREL WILL EFFORTLESSLY ADAPT TO ANY CHALLENGING ENVIRONMENT. FOR THOSE LOOKING TO SURVIVE IN STYLE.

CARGO PANTS JACKETS JUMPSUIT T-SHIRTS TECHNICAL PANTS TRENCHCOAT






자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디자인 확대

- ✓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스 등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각종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음
- ✓ 유니클로는 최근 이러한 기후 재앙에 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이자 가이드인 '비상 재난에 대비한 옷 준비'를 출시
- ✓ 영국의 볼백(Vollebak)은 화재, 비, 눈, 바람에 강한 100년 후드 티셔츠를 선보이고 극한의 회복력을 위해 디자인
- ✓ 일본의 수미모토메탈마이닝(Sumitomo Metal Mining Co)은 디자이너 코수케 츠무라(Kosuke Tsumura)와 협력하여 SXSW 2024에서 출시된 솔라먼트(Solament 재킷을 디자인) 투명한 퍼프로 인해 적외선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열을 생성하고 차단할 수 있음
- ✓ 공기 중의 수분을 가두어 건조한 환경에서 착용자를 위한 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퍼페어 재킷(Puffair Jacket)이나, 대기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착용자가 최적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보호소로 변형할 수 있는 케이프인 에어로셸(Airoshell)등 다양한 재난 대응형 컨셉 웨어들에 대한 연구 확대

EMERGENCY CLOTHING CHECKLIST

Use this checklist to ensure that your emergency kit has sufficient clothes for several days after a disaster until supplies arrive. Make sure you have enough clothes for the whole family.

Category	Description	Key relevant UNIQLO products	Number of items required	Check!
 Long Sleeve	Warm and stretchy and useful as outerwear	Heattech Crew Neck T-Shirt	3	
 Short Sleeve	We recommend fabrics that wick away sweat or dry fast after washing	MEN:Airism Crew Neck T-Shirt WOMEN:Airism Bra Sleeveless Top KIDS:Airism Cotton Blend Scoop Neck T	3	
 Under wear	Include enough to ensure hygiene	MEN:Trunks WOMEN:Airism Ultra Seamless Shorts KIDS:Boxer Briefs	3	
 Socks	Have enough for several days to protect the feet from the wet and cold	Regular Socks	3	
 Mask	To safeguard from infectious diseases in crowded evacuation centers	AIRISM mask	3	
 Lounge wear	Stretchy sweatshirt and sweatpants for sleeping and working in	Ultra Stretch Sweat Set	1	
 Room Shoes	To protect from broken glass and prevent sore feet in evacuation centers	Room Shoes	1	
 Outer wear	Waterproof clothing to keep out the wind, rain, and cold, choosing light and compact items	Pocketable UV Protection Parka Ultra Light Down Jacket Light Warm Padded Parka	1	
 Bag	Ideally, a large-capacity backpack so you can keep both hands free	Backpack	1	



© Sumitomo Metal Mining Co X Kosuke Tsum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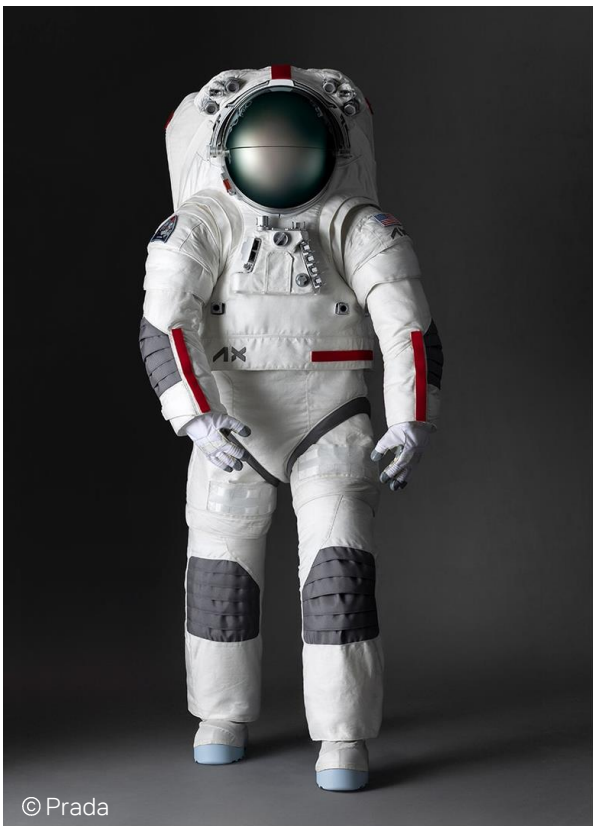
© Puffair Jacket



© Airoshell

우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컨셉형 패션 웨어 시장 확대

- ✓ 럭셔리 브랜드 프라다는 NASA의 2025년 달 탐사를 위한 우주복을 제작하면서 극한의 불리한 환경을 위한 디자인하였는데,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임무가 종료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인 달 착륙인 아르테미스 3호 달 탐사를 위한 NASA의 새로운 우주복을 생산
더 오랜 유영을 위해 3중 레이어링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를 보호하게 했으며, 무릎과 팔꿈치 패드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우주복과 우주비행사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이도록 설계됨
- ✓ 애리조나 주립 대학의 한 교수가 영화 등에서 영감을 받아 극한의 열을 위한 냉각복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주변 환경의 독성 물질을 감지하고 포집할 수 있는 '스마트' 패브릭 코팅을 개발
- ✓ 그래핀 (엄청난 강도, 무중력, 전도성)과 같은 초강력 소재는볼백(Vollebak) 과 같은 혁신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음



지속가능성

패션 브랜드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혁신 소재

가장 지속가능하지 않은 데님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

- ✓ 청바지는 제작 과정에서 많은 물을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는 대표적인 상품군임
- ✓ 소재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는 판게이아(Pangaia)는 맞춤형 청바지 기술 스타트업 Unspun과 협력하여 PANGAIA만의 데님을 개발하는 3년 로드맵을 구축하고 다양한 소재 회사와 협업
- ✓ 2023년에는 기존의 썬기풀과 대마 소재로 만들어진 데님 외에 에브르누(Evrnu)의 시그니처 리오셀 섬유인 뉴클(Nucycl)로만 만들어진 최초의 데님 제품 출시
- ✓ 최근 에브르누는 직접 자신들이 개발한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한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 A close-up photograph of a pink, textured, knitted bag. The bag has a thick, braided pink handle. The texture of the knitted material is very prominent, showing a dense, fuzzy pattern.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 color.



바다에서 찾은 해법, 해조류 및 조류 기반 소재

- ✓ 빠르게 성장하며 CO2를 흡수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해조류와 조류는 담수나 경작지가 필요하지 않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 다시마와 클로렐라 같은 조류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 섬유, 건축 자재 및 바이오 플라스틱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 미국 킬랩(Keel Labs)의 해조류 기반 켈선(Kelsun)섬유가 영국 스텔라맥카르티니(Stella McCartney)와 미국 아우터노운(Outerknown)의 의류에 사용
- ✓ Kelsun은 해조류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하여 제작되며, 이를 통해 고급스럽고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기존의 방적 및 직물 생산 인프라에 직접 통합될 수 있어, 대규모 생산에 적합함



가죽을 대체하는 군사체 소재 시장과 이를 타겟팅한 천연 염료

- ✓ 군사체 시장은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순환 경제에의 기여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2022년에는 약 28억 5,0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9.39%로 성장하여 47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에르메스, 스틸라매카르티니, 알렉산더 맥퀸 등의 브랜드에서 가죽을 대체하는 소재로 2022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군사체 대체 가죽은 지속가능한 소재로 떠오르면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 런던 기반 패션 디자이너 패트릭 맥도웰(Patrick McDowell)은 에코바티브(Ecovative)의 포레이저(Forager) 가죽을 2025년 S/S 컬렉션에 사용했으며, 영국 안경 회사 몽크(Monc)는 가정에서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를 제공
- ✓ 영국의 세이지(Sages)와 오스모스(Osmose)는 군사체 시트 재료를 위한 천연 염료를 개발하며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음





지속가능성

럭셔리 브랜드의 지속가능 마케팅 활동

클래식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해답을 찾은 버버리

- ✓ 버버리는 클래식 컬렉션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디자인을 고민하였는데, 버버리 체크를 핵심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면서, 버버리의 오랜 에퀴스트리안 나이트 로고와 함께 선보임
- ✓ Burberry Classics 컬렉션은 소재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대부분의 의류는 최소 70%의 유기농 또는 50%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
Burberry Classics은 지속가능한 소재 외에도 제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순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제품의 수선, 업사이클링이 포함되며, My Wardrobe HQ 및 Vestiaire Collective 과 협력하여 대여 및 재판매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 ✓ 아동복에서도 remake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전 컬렉션에서 사용되고 남은 재고 원단과 원사로 제작된 30개 이상의 스타일을 선보임
라벨또한 물려주기가 가능하게 여러 사용자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디자인 됨



지속가능 아이템으로 차별화된 하이엔드 무드 제시

- ✓ 2020년에 처음 출시되어 벌써 다섯 번째 컬렉션을 전한 미우미우는 지속가능성 및 순환형 디자인 철학을 실천하고자 노력, 단순히 과거 제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제품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 ✓ 2024년에 미우미우는 업사이클 컬렉션으로 하이 패션과 지속가능 패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오래된 빈티지 데님 소재와 가죽을 사용하여 럭셔리 패션을 제시하여 주목받음
- ✓ 또한 2024년 홀리데이 시즌에는 엠마 코린이 다시 모델로 복귀하면서 니트웨어, 킷, 가죽 아우터 등을 포함한 풀라인 컬렉션을 제시하여 지속가능 제품으로도 완벽한 옷장을 꾸밀 수 있음을 제시함



2년에 걸쳐 개발한 미룸 MCM클래식 Himmel Shopper 토트백

- ✓ 독일의 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 MCM은 미룸(Mirum)으로 만든 캡슐 컬렉션을 출시
- ✓ 미룸(Mirum)은 동물 가죽을 대체하고 플라스틱, 화석 연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천연 고무, 식물성 오일 및 왁스, 천연 색소 및 미네랄을 포함한 재활용 농업 재료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생체재료 회사 NFW에서 제조
- ✓ NFW는 주주인 랄프로렌(Ralph Lauren Corp)과 스틸라매카트니(Stella McCartney)의 SOS 콜라보 펀드를 포함하여 대체 소재를 모색하는 패션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음



LVMH 선정 차세대 디자이너 지속가능 패션 디자이너 엘렌 호다코바 라르손 선정

- ✓ 2024 LVMH Prize for Young Fashion Designers는 지속 가능성과 럭셔리 결합을 보여주는 스웨덴 디자이너 엘렌 호다코바 라르손이 선정됨
- ✓ 라르손의 수상은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필수가 된 패션계의 지각 변동을 의미
- ✓ 2019년 스웨덴의 패션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브랜드 호다코바(Hodakova)를 운영하고 있는 라르손은 세계 최초의 "완전히 지속 가능한 패션 하우스"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라르손은 WWD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창조와 돈벌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구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